“윤리적 성찰없는 과학기술 경계해야”

대담 _ **이덕환** 편집위원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송상용 한양대 석좌교수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유네스코는 처음부터 과학의 인문·사회적 측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1993년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를 만들어 인간게놈과 인권선언을 발표했고, 98년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를 창설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윤리는 인류의 절박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는 과학기술윤리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당면문제를 연구해 자문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담수윤리, 외계개발윤리, 에너지윤리, 환경윤리, 정보사회윤리 등을 다루었지만 앞으로 과학기술윤리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18명의 위원 중 한 분이 되셨다면, 단순히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각오로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 가운데는 저명한 철학자, 노벨상 수상자와 과학원장을 포함한 과학자들은 물론, 대통령을 지낸 분, 영부인, 장관, 국회의원, 대학총장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나로서는 조망을 넓힐 좋은 기회인데 한국의 특수 상황을 알리고 우리 주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생명윤리쪽에서 활동했으니까 국제생명윤리위원회와 다리를 놓는 일도 할 수 있겠지요.

2002년에 '한국과학기술인 헌장'의 초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소개해주시고, 과학기술의 윤리 문제에 대한 우리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진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부다페스트 세계과학회의에서 채택된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과 '과학의제: 행동강령'의 후속작업으로 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과학기술자 헌장(안)을 만들었습니다. 헌장 초안은 과학기술의 가치에서 시작해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자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과학기술 연구윤리의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이 협력하는 길로서 과학기술윤리를 포함한 과학기술학의 연구와 과학기술교육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윤리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가 과학기술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시대착오입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윤리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양식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있어 희망을 가져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는 11월 세계 과학의 날에 우리가 과학기술자 헌장을 선포한다면 세계가 한국을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우러러 보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황우석 교수가 인간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황 교수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황 교수 연구에 관한 특종 보도를 새벽에 급히 읽고 아시아생명윤리회의에 참석하러 공항으로 가면서 착잡했습니다. 과학자체로는 불가능으로 알려졌던 문제에 돌파구를 연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흥분해 일방적인 보도만 하고 정부가 노벨상을 들먹이는 동안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가려졌습니다. 작년 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아직 발효는 되지 않은 미묘한 때입니다.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과학 선진국들이 능력이 없어 연구를 안했겠습니까? 진리탐구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던 시대는 갔습니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사이언스'지 편집자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편지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계속 문제점을 따져 무분별한 연구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과학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최근에 과학철학과 과학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선생님의 기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기술계가 과학철학, 과학사, 과학기술사회학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은 아닙니다. 과학사 · 과학철학에 선배들이 몇 분 계셨으니까 나는 2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분야를 과학기술학(STS)으로 묶어 보죠. 이제 과학기술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과학기술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간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데 과학기술과 인문 · 사회과학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경계영역인 과학기술학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도 과학기술학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철학자의 입장에서 우리 과학기술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성장은 중요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은 겸허하게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문화와 과학 대중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과학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문화로도 보게 되었다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과학문화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나는 과학문화를 꽃피우려면 그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학을 키워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으나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중국, 대만, 일본은 정부가 과학기술학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처져 있어 안타깝습니다. 과학 대중화는 과학 자체를 이해시키는 것 못지않게 과학의 인간적, 사회적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참된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성장의 신화에 빠져 있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 한양대학교의 석좌교수로 부임하셨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활약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요직에 있는 과학자와 20년 전 과학학(Science Studies) 책을 함께 읽은 것이 인연이 되어 위원이 되었지만 제대로 일도 못한 채 구조조정으로 모두 그만 두었습니다. 과학기술에도 개혁할 것이 많았는데 아쉽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라는 STS 중심 과학철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후배들과 함께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곧 짐들을 벗고 못 다한 내 일을 해야겠습니다. ST